



특집 _ 청소년 1천31명 모국연수... 역사현장 탐방하며 모국 배워
화제 _ 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 길로"



재일동포 민단을 살려야 하는 이유

한·일 관계가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질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안개를 뚫고 나가 마주할 바다에 미풍이 불지 폭풍이 일지 모르지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보이고 가슴이 아프다. 한·일이 침예하게 대립할 때마다 한층 어려워지는 재일동포의 삶이다. 사실 재일동포 사회의 변화는 그들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재일동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한국도 있기 어려웠을 것이다. 해방 당시 재일 한국인은 220만~230만 명이었는데 120만~130만 명은 귀국하고 100만 명 정도가 일본에 남았다. 일본이 패전 후에도 한국인들이 모은 재산의 반출을 금하기도 했거니와, 바다 건너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 말처럼 쉬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신민 신분이었다가 해방 후에는 외국인으로 신분이 전환돼 각종 전후 보상에서 제외되고, 식민지 출신이라는 이유로 최하류층으로 분류돼 혹독한 차별을 견디면서 살아남았다. 오늘날 재일동포 81만 명 중 30만 명은 오로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 국적을 유지하는 일본법상 '특별영주자'들이다. 이렇게 살아남은 재일동포들이 보여준 조국 사랑은 눈물겹다. 1950년대 재일동포 애국심의 대표 사례는 6·25 참전이다. 전쟁이 터지자 학도의용군을 조직해 642명이 참전했고,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등에서 52명이 전사하고 83명이 행방불명됐다.

1960~70년대 산업화야말로 재일동포를 빼고 말할 수 없다. 한국 최초 수출산업기업단지인 구로공단 역시 그들이 모태였고, 1978년 재무부에 따르면 재일동포 모국 투자액이 10억 달러를 넘어 외국인 투자액 9억3,700만 달러를 앞질렀다. 1980년대 서울올림픽 때는 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100억 엔(당시 한화 541억 원 상당)을 기부했다.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재일동포는 미화 15억 달러 상당액을 보내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왔고, 우리 정부가 300억 엔의 엔화 국채를 발행했을 때도 적극 나섰다. 이 총액은 한국의 범국민 금 모으기 캠페인으로 모은 20억 달러를 상회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도 재일동포는 2억 엔을 모아 평창을 찾았다. 도쿄 대사관과 오사카 총영사관 등 일본 내 한국 공관 10개 중 9개가 1960~90년대 재일동포가 기부한 것이다.

이런 재일동포 애국심의 중심에 재일본 대한국민단(민단)이 있다. '대한민국 국시 준수'를 강령 1조로 1946년 설립된 민단은 한·일 국교 정상화 후에도 한동안 일본에서 한국 정부 역할을 일부 대신했다. 단원 30만 명(자체 발표)과 1개 중앙본부, 48개 지방본부, 265개 지부를 둔

전국 조직으로 험한론이 기승을 부려도 일본 전역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단체다.

척박한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단이 간혹 우리 정부나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단은 한반도 밖 전체를 통틀어 가장 대규모로 조직화돼 있는 애국적 단체다. 그런 민단의 조직이 최근 급속히 이완되고 있으며 이에 함께 재일동포 사회도 구심점을 잃고 있다. 이 상황에는 민단과 동포사회 자체의 문제를 포함해 여러 배경이 있지만, 조국에 대한 재일동포의 오랜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몰라주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민단이 해체돼 없어진 상황을 가정해보자. 아무리 재원을 퍼부어도 일본에 이런 조직을 다시 갖기는 어렵다. 민단이 조직을 재건하거나 이완 속도를 늦추면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와 인내로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민단·조총련·조선적·신정주자 등 재일동포 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포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들에게 조국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자. 그게 재일동포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고 한·일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장**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04

06

20

- 02 권두언 재일동포 민단을 살려야 하는 이유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04 특집 청소년 1천31명 모국연수... 역사현장 탐방하며 모국 배워
- 06 화제 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 길로"
- 08 기획 '파파 캠프'... 초창기 독립운동 움튼 미국 내 한인타운의 효시
- 10 글로벌 코리안 경계인의 삶 그린 디아스포라 소설 '뉴욕좀비' 작가 유순호 씨
 평창 세계태권도한마당 행사 최고령 참가자 재불(在佛) 동포 이문호 사범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 한인 1.5세 영화감독 이민숙 씨
- 12 한민족 공감 1 문 대통령, 광복절 앞두고 독립유공자·후손 청와대 초청 오찬
- 13 한민족 공감 2 "비바 코레아"... 멕시코 한인 후손들, 일본 규탄 동영상 릴레이
- 14 주목! 차세대 "중양아시아 치킨 시장은 이제 막 개발 단계여서 기회가 무궁무진"
- 15 우리말 배워봅시다
- 16 동포소식 "세계 무역질서 어지럽히는 일본은 각성하고,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외
- 19 동포 캘린더 외교부, 2019 세계한인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공개 외
- 20 유공동포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추앙받는 '폐치카' 최재형 선생
- 21 지구촌 통신원 동티모르 '한국어 열풍'... "가족 위해 한국어 일하는 게 꿈"
- 22 OKF 뉴스 CIS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집중캠프 개최 외
- 24 동포문학 오래된 풍경 _ 심갑섭(미국) 2019년도 '제 21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
- 25 기고문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베트남 귀환 한-베 다문화가족
 김용찬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회장
- 26 재단공지 2019 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22th Future Leaders' Conference)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1천31명 모국연수...

역사현장 탐방하며 모국 배워

입양동포 가족 참가 2019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개최



‘2019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가 재외 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주최로 59개국 1천31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 중·고생 651명과 국내에서 380명이 참가했다. 1차 연수는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광주, 대구, 여수, 안동, 울산, 제주에서 6박 7일간 열렸고 2차 연수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파주·고양, 군산, 대전, 전주, 진안에서 6박 7일간 진행됐다.

올해 행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차세대 청소년들의 비전과 네트워크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 주로 역사 현장 탐방과 모국의 도시와 농어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개막식은 1·2차 연수 모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거행됐다. 또한, 임진각을 방문해 평화통일 프로세스의 현장 분위기를 체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재외동포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캠프의 공

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해, 국내외 청소년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기획되었다.

한우성 이사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부모님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독립운동을 했고, 산업발전을 도왔고, 해외에서 온 마음을 다해 모국의 선진국 도약을 도왔다. 그리고 거주하는 곳에서 우수한 한민족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성공적으로 동포사회를 건설했다. 여러분은 그런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자녀이고, 한민족의 후예이다”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제 한민족의 숙원인 남북 평화통일의 위대한 서막을 열어가고 있다”며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자랑, 동포사회의 자랑이 되는 꿈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모국과 친구들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고 언급했다.

연수에 참가한 재미동포 1.5세 김예주(17·뉴저지 주 거주) 양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거주한 지 오래되어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캠프를



3

통해 한국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미국에 가서도 오래오래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양은 "미국에서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고 동안은 한국에 살기 어렵겠지만 언젠가 결혼한 후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리더로 연수에 참가했다는 전영서(19) 씨는 "한국에 처음 오는 어린 친구들이 많다보니 역사보다는 쇼핑이나 관광, 문화 등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가능하면 내년에도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입양동포 57명 참가... 한국어, 역사, 문화 체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한인 입양동포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2019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23가족 57명은 한국어 집중수업 외에도 전통 공예품 만들기, 한옥마을 탐방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서대문형무소,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견학하며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한우성 이사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인 나라에 살고있는 여러분이 이번에 찾아온 또다른 조국은 대한민국이며 세계에서 일곱 개밖에 없는 3050클럽 국가(GDP 3만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며 "8일 동안 열리는 이번 캠프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온 에리카 씨는 참가자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알게 되는 것이 어느 사회를 알게 되는 비결임은 분명하다"며 "아이들은 언어를 접하면 빨리 배우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과 캠프에 참가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북유럽 지역 입양동포 1세와 2세가 함께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배우는 것은 물론, 모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4



5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됐다. 2017년에는 재일동포 초등학생을, 2018년에는 프랑스 입양동포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각각 열렸다.

한편, 세 자녀와 함께 캠프에 참가한 노르웨이 입양동포 시리 엘리자베스 스탠(여·45) 씨는 "이번 모국 방문을 통해 가족을 찾고 싶다"고 했다. 시리 씨의 입양자료에 따르면 입양과정에서 지어진 한국명은 박경복이며 1974년 8월 한국기독교양자회에 맡겨져 그 다음해 노르웨이로 입양됐다. 그는 "노르웨이에서는 결혼 전 아이를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고 싱글맘이라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나의) 친모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를 입양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친부모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

- 1~2. 8월 1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2019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2차연수) 개회식.
3.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참가자들이 8월 15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다.
4. 8월 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2019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에서 참가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을 지나 민간인통제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5. '2019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 개회식 단체 사진.

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 길로”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日,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뚝뚝뚝 걸어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닥친 국가 경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

는 ‘국일(克日)’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동시에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경제체질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중요한 대일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8·15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직접적 비판의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지속적인 방점을 찍음에 따라, 일본 정부가 호응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을 위한 세 가지 목표로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뜻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순 없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 무기화하면 자유무역 질서 깨질 수밖에 없어”

한·일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며 “일본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줬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함께 이끌어갈 길 우리는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다”며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평창동계올림픽, 내년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거론하며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으로, 동아시아가 우호·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강국 건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구조를 포용·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고, 대·중소기업과 노사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 쏟겠다”며 “과학자·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북·미 실무협상 모색, 비핵화 과정 중대 고비… 불만 있어도 판 깨지 말아야”

한반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또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

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 회담을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모두 북·미 간 실무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의 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게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했다. **[창]**

1~2. 문 대통령이 천안 독립기념관 겨례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3.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4.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파차파 캠프’ ...

초창기 독립운동 움튼 미국 내 한인타운의 효시

안창호 선생 인도로 정착한 한인들이 열흘 밤새 대한인국민회 총회 열어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30여 분 달려가면 만나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다. 구한말에는 하변(河邊)이라 지칭했다는 리버사이드(Riverside)이다. 20세기 초에는 미국 서부의 대표적 부촌으로 꼽힌 곳이다.

온화한 겨울 기후 덕에 오렌지 농장이 번성해 오렌지의 수도로 불리기도 했다. 리버사이드 코티지 스트리트 3096번지. 한적한 주택가 속으로 한참 들어가면 철로와 맞닿는 막다른 지점이 보인다. 철로와 나란히 뻗은 소로에는 커머스 스트리트라는 표지판이 붙었는데, 과거엔 파차파 애비뉴였다고 한다. 고개를 돌리면 철로 반대편 철망 사이로 가스 저장소와 충전 시설이 보인다. 이 일대 부지를 남가주 가스회사 소칼(Socal)이 사들인 것이다. 철로와 철망 탓에 웬지 삭막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이곳이 바로 ‘도산공화국’이자, 미국 내 한인타운의 효시인 ‘파차파(Pachappa)’ 캠프다.

철로를 따라 시선을 쪽 옮기면 한인들이 올라다녔다는 민둥산 모양의 동산도 보인다. 파차파 캠프의 존재가 알려진 건 뉴욕 산본보험회사에서 제작

한 1908년 지도에 이곳을 한인거주지역으로 표시해둔 것이 단서가 됐다. 조국의 현대적 교육을 꿈꾸며 미국으로 향한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은 1902년 10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후 1904년 3월 가족과 함께 남 캘리포니아에 해당하는 리버사이드로 내려왔다. 그리고 도중에 귀국한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1913년까지 거주한 기록이 남아있다. 도산이 세운 공립협회, 신민회, 대한인국민회가 본부를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 뒤서 알려지지 않은 것일 뿐, 초기 미주 한인사회에서 독립운동의 터를 닦은 곳이 바로 리버사이드였다. 신한민보·공립신보 등에는 ‘총회장 안창호 씨가 각 지방을 순찰하며, 리버사이드에는 회원의 수효가 60인에 달하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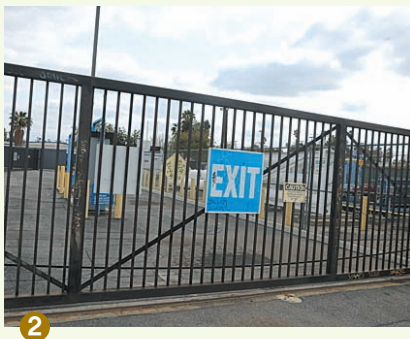
미주 한인 이민사를 오래도록 연구해온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학(UC 리버사이드) 장태한 교수에 따르면 리버사이드에는 1910년대 초반 오렌지 수확기에는 최대 300명 안팎의 한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엔 철로 옆 판자촌 가옥으로 시작됐다. 1911년 이곳에서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가 열렸다. 총회는 열흘 밤낮을 새고 새벽 3시에야 끝났다고 전해진다. 당시로선 상상하기조차 힘든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애국의 마음을 잊지 말라”

당시 신한민보는 리버사이드 총회 분위기에 대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우리는 생명을 한배에 실어놓고 만경창파에 길을 찾아 기관을 운



1



2



3



4

전함에 두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대의원의 고심 경영이 어떠하였겠는가'라고 애절하게 묘사했다. 파차파 캠프에 한인들이 정착하고, 민주적 결사체를 표방한 대한국민회 조직에 의연금도 조금씩 쌓이면서, 이것이 훗날 임시정부의 귀중한 기금이 됐다고 한다.

도산은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 성실한 한인들을 보내 백인 농장주의 신임을 얻게 한 뒤 정착을 도왔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애국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계몽하던 시절이다. 안창호 선생과 공립협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리버사이드로 넘어오는 한인들에게 “정직하게 오렌지를 수확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공립협회는 한인노동국을 개설해 조직적으로 취업을 도왔다.

리버사이드 시는 2017년 3월 파차파 캠프를 문화관심지(사적지)로 지정해 현판을 설치했다. 현판에는 “이곳은 코리아타운의 효시이다. 당시 주소는 1532 파차파 애비뉴인데... 도산공화국으로도 알려진 이곳에 한인 100여 명이 모여 20여 채의 가옥으로 판자촌을 형성했으며...”라는 설명과 ‘1호’(No.1)라는 숫자, ‘1905~1918’이라는 연대 표기가 차례로 새겨졌다.

파차파 캠프는 미혼 남성 중심이던 다른 한인 거주지와 달리 가족중심의 공동체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비록 전기·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주거형태였지만 초기 독립운동의 싹을 틔우던 소중한 터전이었다.

“파차파 캠프... 미주 독립운동의 메카로 다시 조명되어야”

한인들은 낮에는 오렌지를 따고 밤에는 영어를 배우고 일요일에는 예배를 봤다고 한다. 도박과 폭음을 금하는 엄격한 규율, 자치규약도 있었다. 도산은 “무엇보다 몸을 바치고 피를 흘릴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 아래에서 단합된 단체를 설립하고 교육을 하고 자본을 모아야 한다”고 한인 동포들에게 역설했다.

파차파 캠프의 한인들은 이런 지침대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육을 하며 실업회사를 설립해 자본을 축적했다. 파차파를 도산공화국이라 부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파차파 캠프에 이어 리버사이드 다운타운 역(驛), 리버사이드에



5

서 한인들이 두 번째로 이주한 곳이라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여기도 파차파와 마찬가지로 삭막한 철로 주변이다. 당시 한인들은 기차 소음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기피하던 지역에서만 어렵사리 정착할 수 있었다. 그만큼 고단한 타지에서 삶을 개척한 것이다. 리버사이드 다운타운 역은 현재 LA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향하는 통근열차가 다닌다.

리버사이드는 1913년 한파로 오렌지 작황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 이후 한인들도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산은 두 번째 미국 거주 시기인 1911년부터 1918년까지 대한국민회와 흥사단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 즉 도산공화국은 안창호 선생의 미주 생활과 활동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초의 한인타운이자 미주 독립운동의 메카로 다시금 조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

1. 미주 한인 이민사 연구자인 장태한 교수가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소도시 리버사이드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개척한 한인타운의 효시인 파차파 캠프 표지판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2. 안창호 선생이 개척한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파차파 캠프’가 있던 자리. 지금은 남가주 최대 가스회사 ‘소칼’의 가스 저장소와 충전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3. 파차파 캠프 일부 한인의 묘비가 세워진 리버사이드 에버그린 묘지.
4. 파차파 캠프에 정착한 한인들.
5. 리버사이드 오렌지농장에서 일하던 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



경계인의 삶 그린
디아스포라 소설 '뉴욕좀비'
작가 유순호 씨



“한국문학 지평 넓히기 위해서는 ‘이민 문학’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때 '뉴욕 재미동포'들의 터전이었던 퀸즈 플라싱은 이제 차이나타운을 방불케 한다. 다운타운을 남북으로 가르는 메인스트리트 주변은 중국어 일색이다. 동쪽으로 한 블록 옮기자 한국어 간판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한국과 중국이 공존하는 플라싱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디아스포라가 녹아든 장소다. 장편소설 '뉴욕좀비' (서울셀렉션 펴냄) 작가 유순호 씨의 인생 유전도 꼭 플라싱을 닮았다. 중국 동포였다가 미국으로 건너와 재미동포로 지내는 '코리안 차이니즈 아메리칸'이다. 8월 1일 플라싱에서 만난 유 작가는 이곳에서도 '경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10대 시절부터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에서 촉망받는 소설가였지만, 중국 내에서 정치적 문제로 활동이 금지되자 2002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왔다.

당시만 해도 플라싱은 한인들로 북적였으나 어느새 중국어 간판들이 늘었다. 유 작가는 “한인 동포사회는 ‘너희는 중국인 아니냐’ 라면서 잘 받아주려 하지 않았고, 중국인들은 ‘너희는 중국인데 왜 한국계에 끼려고 하느냐’ 고 비난하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인도, 중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경계인으로 18년을 살아온 탓일까. 하루하루 경계의 삶을 사는 대다수 이민자의 고단한 일상이 눈에 들어왔다. 유 작가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한 한인 여성이 손님에게 폭행당하고 경찰서에 불려왔던 적이 있었다. 지인의 소개로 경찰서까지 가서 통역하고 신원보증을 해주게 됐다”면서 “그 여성에게서 뉴욕 매춘산업, 마약 등의 실상을 알게 됐고 언젠가는 이를 소재로 쓰고 싶었다”고 했다. '뉴욕좀비'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코리안 차이니즈 아메리칸'으로서 본인의 뉴욕 생활 18년을 담아낸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유 작가는 “한민족의 삶 자체가 세계를 무대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로 볼 수 있다”면서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풍부한 ‘이민 문학’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1년째 태권도복 입어요... 살아있는 한 태권도 계속할 것”

“우승보다는 이 나이에도 내가 선수로 출전한다는 만족감에 참가했어요.” 7월 26일 2019 세계태권도한마당 행사가 열리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돔에서 만난 프랑스 낭트에서 온 한인 동포 이문호(74) 사범은 “젊음을 확인하기 위해 7년째 공인 품새 부문 선수로 참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 9단의 이 사범은 7월 30일 60세 이상 개인 품새 부문의 선수로 출전해 9개국에서 온 경쟁자들과 기량을 겨뤘다. 이 사범은 이번 한마당 행사에 60세 이상 공인품새 부문 최고령자로 참가했다. 이 사범의 태권도 인연은 6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종로구 토박이인 그는 수송중학교 1학년 때인 1958년 태권도복을 입었다.

1973년 국기원 창립과 함께 개최한 제1회 세계태권도대회의 한국팀 코치를 맡기도

했다. 1977년 미국에 태권도를 전파하겠다고 마음먹고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3국을 통해 가려고 지인이 있는 프랑스 낭트에 갔다가 놀러있게 됐다. 일본 가라테가 휩쓸고 있는 현지에서 태권도가 뛰어들 틈새는 아주 비좁았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라테 클럽에서 한 섹션으로 태권도를 넣고 활동을 시작했다. 서서히 태권도가 알려지면서 그는 '태권도 이문호 도장'을 차렸다. 지금까지 42년째 낭트는 물론 프랑스에 태권도를 알리고 있다. "1980년부터 8년 동안 프랑스 국가대표팀 코치(겨루기 부문)로 활약했어요. 88서울올림픽 때 코치로 참가했죠. 등위에는 못 들었지만, 프랑스에 태권도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겨루기 선수와 코치로 활동한 그는 종목을 품새로 바꿨다. 태권도계에서는 겨루기에서 품새로 전환하면 망한다고 말할 정도로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그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과감히 도전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말하는 그는 연마 끝에 유럽대회에 나가 우승했고, 멕시코 세계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태권도는 거짓말을 안 해요. 깨끗하고 절도가 있죠. 노력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하얀 도복을 입고 할 수 있는 무예예요. 살아있는 한 계속 태권도를 할 것입니다."



평창 세계태권도한마당 행사 최고령 참가자 재불(在佛) 동포 이문호 사범

“반드시 당선해 한인과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ی겠다”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다큐멘터리 감독 중 한 명인 이민숙(50) 씨가 오는 10월 치러지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현지 한인사회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말 야당인 신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 후보는 현재 토론토-댄포스 선거구를 돌며 선거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지 한인들은 “그가 출마한 선거구가 신민당 강세 지역이라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후원회(회장 이병용 전 평통 부회장)를 결성하고 후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매일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시민과 만나고, 가가호호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하느라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라며 “반드시 당선해 한인과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그는 ‘타이거 스피릿’(Tiger Spirit)으로 캐나다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제24회 제머나이 어워드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영화는 남북분단의 비극에 얽힌 평범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분단의 쓰라린 아픔과 통일의 소망을 생생하게 그렸다. 타이거 스피릿을 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라면서 한국에 왜 전쟁이 있었고, 왜 많은 한국인이 해외에 사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분단 전 한국은 하나였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됐다”고 밝혔다.

캐나다 TV와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을 연출, 진행하기도 한 그는 2003년 캐나다 농장에서 일하는 멕시코인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계약’으로 감독에 데뷔했다.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세 살 때인 1973년 부모를 따라 캐나다에 이민했으며 토론토대와 브리티시컬럼비아대에서 인류학과 철학을 전공했다. CBC와 토론토 1TV 등에서 방송기자로 활약했고, 캐나다 국립영화사(NFB)에서 일했다. **장**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 한인 1.5세 영화감독 이민숙 씨



문 대통령, 광복절 앞두고 독립유공자·후손 청와대 초청 오찬

안중근 의사 외손녀·재불한국민회 2대 회장 홍재하 선생 아들 등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8월 13일 독립유공자와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찬에는 생존 애국지사 9명과 광복절 경축식 독립유공자 서훈 친수자, 독립유공자 후손 등 총 160여 명이 초대됐다.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프랑스·호주 등 6개국에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 36명도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의 취지를 두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초청해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내 나라에 와서 살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내 땅에 묻히려고 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 여사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태어나 지내다가 최근 한국을 찾은 이유를 이같이 말하자 미소를 지으며 이를 들던 문 대통령이 손뼉을 쳤고 나머지 참석자들도 박수로 화답했다. 황 여사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가족이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황 여사에 이어 인터뷰에 응한 재불한국민회 2대 회장 홍재하 선생의 차남 장자크 홍 푸안 씨는 "아버지는 삶의 뿌리를 철저히 한국 전통에 둔 애국자였다"고 말했다. 재불한국민회는 한국인 청년들이 1920년 프랑스에서 설립한 유럽지역 최초의 한인단체로, 홍 선생을 비롯한 한국인 청년들은 시신 안치 등으로 번 돈을 모아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지원했다. 장자크 씨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확고하셨던 아버지께서 '한국에 가면 한국어를 배울 테니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와 후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좌). 홍재하 선생의 아들 장자크 홍 푸안 씨가 독립유공자와 후손 초청 오찬에서 인터뷰 도중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제가 한국말을 못 하게 됐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복절을 맞아 아버지 대신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게 된 그는 "아버지처럼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오래전부터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전 세계가 놀랄만한 귀감이었다"고 강조했다. '아리랑'을 기억하는 장자크 씨가 사회자의 제안에 앞부분을 선창하자 참석자들은 합창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황 여사님의 이야기에서 독립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꿈꾼 안중근 의사의 높은 기개와 사상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재하 선생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려주신 장자크 홍 푸안 씨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홍재하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국지사의 삶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이자 마주하는 오늘이고 마음에 영원히 담을 미래"라며,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마음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

“비바 코리아”... 멕시코 한인 후손들, 일본 규탄 동영상 릴레이

멕시코 ‘에네켄’ 후손들, 스페인어 영상으로 고국 응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확신합니다.” 카메라를 향해 차분히 스페인어로 메시지를 전한 남성이 ‘비바 코리아’를 선포하자, 나란히 서 있던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멕시코인들이 ‘만세’를 외치며 뒤따른다.

멕시코 유카탄 지역의 한인후손회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기 위해 8월 4일 제작한 동영상이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멕시코 내 한인 후손들이 잇따라 일본을 규탄하고 한국을 응원하는 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고 주멕시코 대사관이 전했다.

이들은 1905년 멕시코 유카탄 주로 건너가 에네켄(애니깽·용설란의 일종) 농장의 노동자로 일한 한인 1천31명의 후손으로, 현재 멕시코와 쿠바 전역에 3-6세대에 걸쳐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초기에 넘어간 이민자들의 성비 불균형 탓에 현지인과 결혼한 경우가 많아 후대로 갈수록 외모도 언어도 현지화됐지만, 후손들은 멕시코에 6개, 쿠바에 1개의 한인후손회를 결성해 한국의 뿌리를 기억하며 살고 있다.

멕시코 한인 1세대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대한민국 민회 지부를 결성해 독립운동 자금을 송금하는 등 멀리서도 고국에 대한 애정을 쏟았다. 이번에도 율리세스 박 유카탄 한인후손회장이 먼저 영상을 만들어 올리자 여기저기서 후속 영상을 올리며 동참했다. 멀리 고국을 응원하는 영상이면서 동시에 스페인어로 한국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멕시코의 한인 후손 3세인 막시미노 유 리 씨가 8월 6일 멕시코 코시타에서 열린 한인들의 일본규탄 시위에 참석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스페인어 메시지와 일본 상품 불매 의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좌). 멕시코 한인 후손 가족의 한국 응원 영상.

자신을 이민 3세대 막시미노 유 리 라고 소개한 후손의 가족은 태극기를 들고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한인 만카노 유, 게레노 김 가족은 국악을 배경음악으로 한 영상에서 “일본 정부의 이기적인 행태에 반대한다” “일본은 교역 문제를 외교 전쟁의 무기로 삼지 마라” 등의 스페인어 문구가 적힌 손팻말로 메시지를 전했다. 또 다른 한인 후손인 라라 송 가족은 “함께 하면 우리는 더 강하다”라는 메시지로 한·일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하기도 했다.

주멕시코 대사관 문영주 영사는 “이번 영상 제작은 한인 후손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활동이 활발한 젊은 한인 후손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영사는 “과거 독립운동을 후원하기도 했던 멕시코 한인의 후손들이 한·일 갈등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해 고국을 응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창**

“중아시아 치킨 시장은 이제 막 개발 단계여서 기회가 무궁무진”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당 운영하는 정치훈 씨

중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시내 중심가에 있는 에르딕 공원. 이곳 주변에 핫플레이스가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플랫폼인 ‘트립어드바이저’가 2017년 비슈케크 800여 개 레스토랑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식당으로 꼽은 곳이다. 치킨전문점 ‘치킨스타’다. 한국인 정치훈(37) 씨가 2015년 5월 문을 연 레스토랑이다. 지난 7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을 때 BBC 방송은 그를 현지 한인 대표기업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를 8월 11일에 만났다.

정 대표는 “한 달 평균 1천600kg 정도의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월 4천만~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며, “한국식 치킨이지만 현지인 입맛에 맞게 직접 소스를 개발했고, 현재 11종류의 치킨을 손님에게 제공한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치킨스타’가 생기기 전까지는 닭을 전기구이로 먹거나 삶아서 요리를 해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 대표가 이들의 입맛을 서서히 바꿔놓고 있다. 이 레스토랑은 치킨과 음식을 판매하지만 노래하는 무대, 댄스와 그림 전시 공간도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꾸며졌다. 정 대표는 “단골손님이 꾸준히 생기고 있으며, 현지 거주 외국인과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치킨스타와 함께 오픈한 ‘플래스크 커피숍’도 매출 규모가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치킨스타’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한다. 오픈한지 1년 6개월 만에 흑자가 났고, 3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수익금 대부분은 현지 젊은이들의 교육, 예술가 지원, 직원 복지 등



정치훈 치킨스타 대표(위). 식당에서는 소규모 공연도 열린다.

에 쓰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시장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리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 러시아어 언어권 국가로 확장할 기회가 있는 곳이지요. 카자흐스탄 알마티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중앙아시아의 큰 도시, 나아가 러시아까지 진출 가능합니다.”

‘치킨스타’ 2호점은 지난 5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났다.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아블라이하나 길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하지만 치킨 메뉴는 8종류다. 물론 플래스크 커피숍도 매장과 붙어있다. 그는 “알마티에 매장 2~3개를 더 오픈해 경험을 쌓은 후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아시아 치킨 시장은 이제 막 개발하는 단계여서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가 키르기스스탄에서 치킨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감리교신학대를 졸업한 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까’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미국 보스턴대 신학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난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화가로 활동하다가 2014년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영국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업하는 지인을 만났고, “시간 있으면 한번 같이 가보자”는 제안에 우연히 따라갔다가 정착하게 됐다. 그는 “키르기스스탄이 기회의 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 만만치는 않다”며,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태도, 성급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자세, 현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창**

바른 말 고운 말

유출과 누출

어떤 것에서 무엇인가가 새어나가는 경우에, 어떤 때는 ‘누출’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출’이라고도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누출’이라는 말은 한자의 ‘새 루(漏) 자를 써서 액체나 기체와 같은 것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기름이 누출되어 바다가 오염됐다’ 또는 ‘가스 누출에 의한 사고로 큰 피해가 잇달았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이 새어나갈 때는 이와 같은 한자를 써서 ‘누수(漏水)’라고 하고, 전기가 새어나가는 것은 ‘누전(漏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출’이라는 말은 한자의 ‘흐를 류(流) 자를 쓰는데, 이것은 우선 액체가 밖으로 나가거나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나라나 조직 밖으로 나가 버린다는 뜻도 있어서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됐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몹쓸 병에 걸리다

“그 사람 그렇게 고생만 하며 살더니 결국은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군요.” 우리말 표현 가운데는 글자의 형태나 발음이 비슷해서 간혹 혼동하여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몹쓸 ~’과 ‘못쓰다’라는 표현입니다. ‘몹쓸’이라는 것은 악독하고 고약하다는 뜻의 관형사로 항상 명사 앞에 놓여서 그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치기 힘들거나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 ‘몹쓸 병에 걸렸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가리켜서 ‘몹쓸 짓’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못쓰다’라는 말은 그런 거짓말을 하면 ‘못써’와 같이 ‘옳지 않다’ 또는 ‘안된다’는 뜻이 있고, 또한 ‘며칠 밤새워 공부하더니 얼굴이 못쓰게 됐구나’에서처럼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예문의 경우도 ‘몹쓸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몹쓸 병에 걸렸다’고 해야 맞습니다. ‘몹쓸’과 ‘못쓰다’는 그 쓰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발음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019년 4월호 정답

태	극	기	제	현	절	쉬
권	역	사	리	법	정	금
도	시	리	을	강		
누	출	지	방	산		
모	이	영	문	법		저
닥	천	덕	칠			
불	쾌	지	수	파	전	짚
속	정	수	팔	등	신	
선	택	과	목	기	교	

▶ 오른쪽 방향 열쇠

1. 대한민국 동남부에 있는 도(道).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다
3. 자기의 집 또는 직장 등에 있지 않는 동안을 뜻한다
5. 때나 먼지가 많이 낀 모양
7. 밥을 담은 작은 그릇. 학교에 점심을 먹기 위해 싸가지고 가죠
9. 참됨, 착함, 아름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11. 맵거나 독하여 혀끝이 몹시 아리고 쓰는 느낌이 있다
12. 곤하게 깊이 자면서 숨을 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13. 일반직 4급 공무원의 직급. 부이사관 아래, 사무관의 위이다
16. 청자, 백자 등을 일컫는 총칭
18. ‘배’와 같이 글자의 음은 같으나 뜻이 다르다
20. 조선 영조 시대에 백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든 납세법
21. 사팔눈을 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아래쪽 방향 열쇠

1.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도(道). 수원이 도청 소재지
2. 인간이 지켜야할 도리와 그에 준한 행위
3. 도지사를 보좌해 도청 사무를 관장하는 고위 공무원
4.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자꾸 하는 소리나 모양
6. 편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8. 마음씨가 하는 짓이 좁스럽고 인색한 모양. 자질구레한 것까지 낱날이 따지는 모양
9.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 내는, 사정을 진술해 적은 글
10. 화화, 조각 등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곳
11. 설탕물에 과일즙이나 우유 또는 향료 따위를 섞어 얼려서 만든 것
12. 여름철엔 급성전염병을 일으키는 ‘○○균’을 조심해야죠
14. 기어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15. 조선 중기·후기에, 여러 가지 공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
17.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
19.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세계 무역질서 어지럽히는 일본은 각성하고,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유럽, 미국, 캐나다, 브라질, 뉴질랜드 등 각국 재외동포 日 불매운동 동참



광복절을 맞아 뉴욕 동포들이 맨해튼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 하고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8월 12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건물 인근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 하는 재영 한인 집회가 열렸다.

재외동포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지정을 규탄하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민주평통 유럽지역회의(부위원장 박종범)는 8월 5일 성명에서 “일본의 1, 2차 경제보복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 행위이자 경제침략 행위”라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본은 각성하고,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지역회의는 소속 60개국 460명 자문위원의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했다. 캐나다 토론토 한인 100여 명은 8월 4일 토론토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군국주의 부활이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라고 비난하며, “한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 동포들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 데 맞춰 8월 5일부터 현지 한인 미디어에 일본 제품 불매를 촉구하는 광고를 실기 시작했다. 이후 광고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난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밝히는 내용으로 발전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도 기념행사와 함께 일본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낮 뉴욕 맨해튼의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현지 동포들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고,

한국에 대한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LA를 비롯해 워싱턴, 시카고 등지의 한인사회도 지난달부터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기용 자유광장 대표와 김치환 한국민주평화연구소 대표 등 미국 워싱턴 지역 한인들은 8월 1일 모임을 열고 ‘워싱턴지구 한국 범 동포 일본 상품 불매운동연합’을 출범시켰다. 이들은 “일본이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구태여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일본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각 지역 연방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영국 내 한인단체는 공동으로 8월 12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상원의원 건물 인근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 영국본부, 재영국 대한체육회 등 한인 단체 소속 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런던 관광객이 몰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의사당 인근에서 ‘노 재팬, 노 아베’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클랜드한인회 등 뉴질랜드 지역 11개 한인회도 8월 2일 성명을 내고 “뉴질랜드 한인들은 한국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에네켄’ 역사 한눈에… 멕시코 한인이민박물관 재개관

114년 멕시코 한인 역사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 갖춰



멕시코 유카탄 주 한인이민박물관이 재개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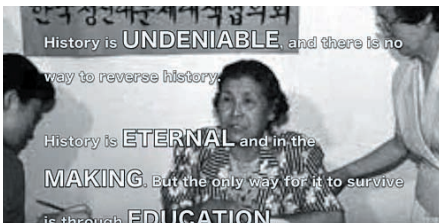
멕시코 한인들의 파란만장한 이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멕시코 유카탄 주 메리다시의 한인이민박물관이 새 단장 후 다시 문을 열었다. 8개월가량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8월 11일 재개관한 한인이민박물관엔 114년 멕시코 한인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과 신문, 편지, 옷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멕시코에 한인들이 처음 정착한 것은 1905년으로, 신문 광고 등을 보고 노동이민을 떠난 1,033명이 한인 1세대다. 유카탄에 도착한 이들은 선박용 로프 등을 만드는 선인장의 일종인 에네켄 농장으로 끌려가 농장주의 횡포 속에 고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멕시코 한인 1세대는 에네켄 또는 애니깁으로 불린다.

현재 멕시코와 쿠바 곳곳에는 3만여 명의 에네켄 3~5세 후손들이 살고 있다. 1세대 한인들의 성비 불균형과 고국과의 오랜 단절 탓에 외모도 언어도 현지화됐지만, 후손들은 한인 후손회를 조직해 뿌리를 기억하며 살고 있다. 메리다 한인이민박물관은 옛 한인회관 건물을 개조해 지난 2007년 처음 문을 열었다. 1세대 한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로 한국인과 멕시코인들에게 한인 이민사를 알리고 있다. 메리다에서 미리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 맞춰 마련된 재개관식에는 김상일 주멕시코 대사과 율리세스 박 리 유카탄한인후손회 회장, 유카탄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재미동포 고교생들이 만든 ‘위안부 비디오’… “역사는 부정할 수 없어”

비디오 경연대회에 출품… 김학순 할머니 첫 증언 장면 등 담아



재미 한인 고교생들이 만든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영상.

미국에 있는 한인 고교생들이 위안부(Comfort Women) 피해자를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 8월 8일 위안부행동(CARE·대표 김현정)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스쿨 오브 아트 재학생 노아 장, 유니버시티 하이스쿨 재학생 카일라 조, 같은 학교 재학생 솔 최, 어바인 하이스쿨 재학생 지우 유 등이 제작한 이 영상은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말라’(Don't silence their voices)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어 미국 학교의 세계사 교육에서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인터뷰가 이어진다. 한인 고교생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들어봤는지 묻지만, 거의 모든 학생이 ‘들어본 적 없다’라고 답한다.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는 역사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다.

이어진 영상에는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장면을 담았다. 또 2013년 미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소도시 글렌데일에 미국 내에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는 영상도 담았다. 영상은 마지막으로 ‘역사는 부정할 수 없으며 거스를 방법도 없다. 역사는 영원하다’는 말과 ‘역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이다’라는 말로 끝맺음한다. 이 영상은 위안부행동이 ‘미국 학교에서 위안부 역사와 이슈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비디오 경연대회에 출품됐다.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집필 돌입... 내년 9월 출간 목표

1920년 9월 장운원 선생 자카르타 도착이 한인사 시발점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가 출범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가 내년 9월 출간을 목표로 한인 100년사 집필에 돌입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박재한 한인회장을 편찬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편찬위원회를 구성, 최근 출범식을 열고 자료수집에 돌입했다고 8월 8일 밝혔다.

박재한 회장은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가 내년이면 100년을 맞이한다”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된 이곳에서 지난 100년을 기념하고 돌아보고자 100년사 편찬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의 이야기가 진실성과 정통성을 갖춰 100년사에 담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인도네시아의 한인 역사가 시작된 것은 3·1운동 자금을 지원한 장운원 선생이 망명 생활을 하다 1920년 9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바타비아)에 도착한 것을 기점으로 한다. 그보다 앞선 1910년대에 한인 인삼 상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다녀가기도 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올해 2월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을 받아 출간된 ‘프랑스 한인 100년사’ 등도 입수해 한인사 편찬에 참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기원 ‘2019 한민족 오토렐리’ 입국... 전국 순례 돌입

모스크바 출발, 독립운동 발자취 돌아본 뒤 2만5천km 대장정 마무리



‘2019 한민족 오토렐리’에 참여한 고려인들이 8월 15일 한국에 입국했다.

한반도 평화기원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고려인들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대한민국을 자동차로 이동하는 ‘2019 한민족 오토렐리’ 참여자들이 8월 15일 한국에 입국했다.

고려인 지원 시민단체 동북아평화연대에 따르면 러시아의 고려인 오토렐리집행위원회와 동북아평화연대 오토렐리집행위원회(위원장 장상락)가 준비한 이번 행사 참가자 40여 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이날 배로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 들어왔다.

한민족 오토렐리 참여자들은 차량 10대를 이용해 7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떠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다. 이들은 이동 중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서 흥범도 장군 동상에 참배하고 중국 하얼빈 안중근의사기념관과 731부대 터를 방문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 움직였다.

참가자들은 동해항을 떠나 광화문 8·15 기념행사에 참여했으며 8월 16일에는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8월 25일까지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천안 독립기념관, 광주 5·18 민주묘역, 대구 국제보상운동공원 등을 순례한 뒤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가 약 2만5천km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려인오토렐리집행위원회 김에르네스트 회장은 동해항에 입항한 뒤 “광복절 뜻깊은 날 한국에서 기쁨을 함께하게 되어 저희 또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북아평화연대와 고려인들은 2014년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맞아 유사한 행사를 처음 개최한 바 있다. [▶](#)



외교부, 2019 세계한인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공개

외교부는 "10월 5일 제13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들에 대해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 포상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공개검증 기간은 8월 12일부터 26일까지이며 외교부 재외동포과 이메일(snin19@mofa.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한인의 날에 정부포상을 받는 재외동포 수는 총 96명(단체 6개)이다.

8월 말 청주시 국내외 한인여성 600명 네트워킹

국내외 한인 여성 리더 600여 명이 모여 '평등한 미래를 함께 열다'라는 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제19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가 8월 27~29일 청주시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참가자가 함께 한인 여성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고, 성적으로 평등한 미래 100년을 위한 과제와 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韓 기업 엠뷰글로벌, 파라과이 정부에 생리대 40만 장 기부

생리대 전문 제조업체 엠뷰글로벌이 내년 3월 파라과이 정부에 생리대 40만 장을 기부한다. 김동욱 엠뷰글로벌 대표는 7월 22일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인실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알리카 라코니크 여성부 차관, 파라과이 산업공단 NSA의 파비오 회장, 명세봉 월드옥타 사우다드델에스테 지회장, 구일회 파라과이 한인회장 등이 함께했다. 엠뷰글로벌은 아순시온 인근 NSA 공단에 6천500㎡ 규모의 생리대 및 기저귀 제조공장을 짓고 있다.

日 히로시마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거행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연행 등으로 일본에 왔다가 히로시마(廣島)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돼 숨진 한국인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5일 열렸다. 히로시마시 나가구에 있는 평화기념공원 안의 한국인 원폭희생자위령비 앞에서 거행된 이 날 추모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새롭게 사망자로 확인된 14명을 더한 희생자 2천760명의 명부가 비석 아래에 안치됐다.



재일동포 김시종 시인 '잃어버린 계절' 국내 출간

재일동포 시인 김시종의 일곱 번째 시집이자 타카미준상 수상작인 '잃어버린 계절'이 국내에 나왔다. 도서출판 창비는 '잃어버린 계절'을 이진경과 카게모토 쓰요시의 공동 번역을 통해 출간한다고 8월 7일 밝혔다. 조국을 빼앗긴 식민지 백성에서 황국(皇國)의 시민으로 변해가면서 일본어로 시를 써야 했지만, '일본식 서정'에서 벗어나려고 끝없는 실험을 시도하는 시인의 정신이 시집 속에서 묻어난다.

재외동포 언론인들,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규탄

한인 언론인들을 회원으로 둔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사진)는 8월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데 대해 주권 침략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세한언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경제 주권 침략', '사법 주권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추앙받는 ‘페치카’ 최재형 선생

안중근 의사 의거도 배후 지원... 내년 순국 100주년 앞두고 기념비 제막

최재형 선생은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연해주 동포사회에서는 ‘최 페치카’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하다. 페치카는 러시아어로 벽난로를 뜻한다. 추위가 혹독한 시베리아에서는 집마다 페치카를 설치하는데 선생은 동포들에게 난로와 같이 따뜻한 존재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1860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출생한 최재형은 9살 때 가족과 함께 연해주로 이주했지만 굶주림에 가솔했다. 며칠간 노숙을 하다 항구에서 러시아 선장 부부에게 발견돼 양육됐다. 11살부터 6년간 러시아 상선을 타고 수습 선원으로 세계를 일주하며 견문을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극동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와 통역 일을 하며 언어소통 문제로 차별받던 한인 동포들을 도왔고, 이후 군납 사업을 하며 크게 성공했다.

경제적 부를 쌓은 그는 한인 동포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30여 개 학교를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우수 졸업생에게는 장학금 주며 대도시로 유학을 보냈고, 이들이 돌아오면 모교 교단에서 동포 후손들을 가르치도록 했다. 어려움을 겪는 한인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도움을 베풀었다. 선생은 사업가로서 거둔 부를 자신이 아닌 일제가 강제 침탈한 조국의 독립을 되찾는 데 썼다.

1908년 독립운동 조직인 동의회를 조직했다. 의병부대인 대한의군에 무기와



연해주 독립운동 대부 최재형 선생.

74주년 광복절을 앞둔 8월 12일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한 최재형 선생 기념비가 러시아 우수리스크 최재형기념관에 세워졌다.



숙식을 제공했고, 이듬해에는 동포 신문인 대동공보를 인수해 사장을 맡았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의거를 배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사가 하얼빈으로 떠나기 전 최재형 집에서 사격 연습을 했고, 그가 소지한 신분증이 대동공보 기자증이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1911년에는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을 맡았고, 일제에 강제 폐간된 대동공보를 대신해 1912년 권업신문을 발간하기도 했다.

1919년 중국 상해에 들어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초대 재무총장에 임명됐으나 취임은 하지 않았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는 혁명 세력인 볼셰비키 적군과 반대파인 백군 간 내전이

벌어졌다. 당시 일본군은 내전에서 백군을 지원했는데 적군 공격을 받아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에 공격에 가담한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한인사회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을 저질렀다.

1920년 4월 5일 최재형 선생을 포함한 여러 독립운동가가 일본군에 연행됐고 이를 뒤인 7일 일본군에 총살된다. 당시 일본군은 최재형이 암살 중 탈출을 시도해 사살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어떤 경위로 순국했고, 시신은 어디에 묻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8월 12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최재형 기념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기념비는 그의 고택을 해외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새롭게 단장한 해외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새롭게 단장한 최재형 기념관에 설치됐다. 최재형 선생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재외동포로 소개됐다. [▶](#)

동티모르 ‘한국어 열풍’ ... “가족 위해 한국서 일하는 게 꿈”

2009년부터 3천여 명 한국행... 현지 대비 임금 10배 이상



한국어 수업 풍경(좌), 동티모르 수도 달리의 한국어학교

“**제** 꿈은 한국어 시험에 통과한 뒤 가족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7월 22일 동티모르 수도 달리에 있는 한국어 학교에서 만난 이 학교 학생 소니오 수아레스 누네스(19)군은 한국어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다. 누네스 군만이 아니다. 이 학교에서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1천600여 명의 학생은 모두 한국에서 일하겠다는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있다.

한국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2009년부터 한국어 시험에 통과한 동티모르인들에게 어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있다. 올해 3월까지 한국에 일하러 간 동티모르인은 모두 3천200여 명이다.

동티모르의 청년실업률은 16.7%로, 일 자리를 구한다 해도 통상 월급이 115달러(13만5천 원) 정도지만 한국에서 일하면 1천500달러(1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동티모르 정부는 KSLP라는 한국 NGO를 통해 한국어 교사 15명을 채용,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5교시

동안 10개 반씩 총 50개의 한국어 수업 반을 실세 없이 운영 중이다.

송명건 KSLP 학생부장은 “초기에 한국에 나갔던 근로자들이 돈을 벌어 귀국하는 것을 보고,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며 “현재 수업 중인 학생 1천600여 명은 지원자 5천 명 중에서 기본 한국어 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코이카(KOICA) 단원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거나 독학을 하는 학생들도 많다.

최근 들어 동티모르에서 번듯하게 지어진 양옥집은 ‘아들이 한국 가서 돈 벌어진 경우’라고 소문나 있다. 동티모르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을 SNS에 올리면서 더 많은 젊은이가 한국행을 희망한다. 한국어 교사 김동근 씨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라서 생활 언어와 직업 관련 회화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동티모르에서 한국어시험은 한국 업체들의 수요에 따라 연간 1~2차례 시행되

고, 필요에 따라 3차례 실시되기도 한다. 사비노 다스네베스 동티모르 직업훈련고용청 한국 담당자는 “일할 수 있는 동티모르인은 전부 다 한국에 가고 싶어한다”며,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어업과 제조업 분야 근로자만 선발하다 보니 동티모르 여성들이 더 좋은 성적으로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도 취업 기회가 없다”며 농축산업 분야에서도 선발해줄 것을 희망했다. 동티모르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취업 기회를 주는 나라는 한국과 호주밖에 없고, 호주는 농번기에 계절성 일자리만 주기에 한국의 인기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동티모르 총리실은 이친범 주동티모르 한국대사의 제안에 따라 법무부·노동청·보건부·언론청 등으로 구성된 ‘한국 취업 테스크포스’를 가동, 근로자 추가 송출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

성혜미 연합뉴스 자카르타 특파원

CIS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집중캠프 개최

우즈벡,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 80명, 서울서 ‘한국 알기’ 구슬땀

CIS 지역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역사문화도 체험하는 ‘2019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집중캠프’가 8월 7일부터 10일 동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문화에 이해가 부족한 CIS 지역 동포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2017년부터 한국어 집중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4개국의 고려인 청소년 80명, 인솔교사 10명 등 9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참가자들은 오전에는 수준별 한국어 집중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전통시장, 남산타워, 한글박물관, 불국사 탐방 등 역사문화에 대한 체험에 나섰다. 한우성 이사장은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접하지 못한 CIS 고려인 청소년들이 아직도 많다.”며,



2019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집중캠프 개회식 단체 사진.

“차세대 고려인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잘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캠프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광복절에 다시 만난 윤동주 시인

KBS 2TV, 8월 15일 ‘윤동주 콘서트-별 헤는 밤’ 방영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칼이 아닌 펜으로 일본에 맞서 싸운 윤동주 시인을 다시 만났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과 KBS(사장 양승동)가 주최한 ‘윤동주 콘서트-별 헤는 밤’ 공연이 이날 저녁 6시 KBS 2TV를 통해 방송됐다. 이어 8월 16일 오후 2시 KBS월드24 와 8월 17일 오후 3시 KBS1TV에서도 재방영했다. 공연은 앞서 7월 18일 KBS홀에서 사전 녹화로 진행됐다.

이번 콘서트는 재외동포로서 윤동주 시인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의 시를 재해석해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재외동포재단은 밝혔다.

1917년 용정에서 태어난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으로 꼽힌다. 1943년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됐으며 1945년 사랑하는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복역 중 사망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150년 재외동포 역사가 낳은 자랑스러운 최고의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윤동주를 통해 5,200만 국민과



‘윤동주 콘서트-별 헤는 밤’ 공연 장면.

740만 재외동포가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동주 콘서트-별 헤는 밤’에는 배우 김형철·한혜진이 MC를 맡고 이적, YB 밴드, 다이내믹 듀오, 백지영, 윤희중, 스윗소로우, 포레스텔라, 민우혁, 이하림, 박혜수, 장동윤 등이 출연했다.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발표… 5개 부문 34편 선정

단편소설 부문 대상에 카자흐스탄 동포 이태경의 ‘오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2019년도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총 34편을 선정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성인 분야 대상은 체험수기 부문에서 박영희(중국)의 ‘전설처럼 살다 가신 할머니’로 선정됐다. 단편소설 부문은 이태경(카자흐스탄)의 ‘오해’, 시 부문은 심갑섭(미국)의 ‘오래된 풍경’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청소년 글짓기 최우수상 작품은 중·고등부에서 홍세흔(뉴질랜드)의 ‘2019년이 1919년에게’, 초등부에서 박동하(뉴질랜드)의 ‘지구 반대편까지 들리는 평화의 만세소리’가 뽑혔다. 이밖에 한글학교 특별상 수상자로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한글학교, 캐나다 노스욕컴머벨리한글학교가 선정됐다.

총 42개국에서 855편의 작품이 응모한 가운데, 국내 문단에서 존경받는 신경림, 신달자, 정호승, 유자효(詩), 오정희, 구호서, 우한용(단편소설), 이경자, 유현경, 박인기(체험수기), 박상우, 권지예(청소년글짓기) 등 문인, 학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체험수기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경자 소설가는 “재외동포문학상 심사를 하며, 개인적으로는 재미동포인 친정식구들의 삶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며, “당선된 작품들이 널리 읽혀,



올해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심사위원. 왼쪽부터 정호승, 유자효, 신경림, 신달자 시인.

재외동포를 바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시 부문을 심사한 신경림 시인은 “올해 작품 수준이 향상되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페루, 그리스 등 우리 동포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도 20여 년을 살며 꾸준히 한글로 작품을 써내려가는 점이 대단하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올해 경쟁이 치열했던 시 부문은 심사위원단의 요청으로 가작을 추가 선정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999년부터 ‘재외동포문학상’을 매년 개최,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을 장려하고 있다.

세계 한상인의 축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사전등록 마감 임박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주최하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사전등록이 한국시간 기준으로 9월 2일(월) 마감한다. 참가 신청은 세계한상대회 공식 홈페이지(www.hansang.net)에서 가능하다. 사전 등록기간에 신청하는 참가자에게는 참가비의 30%가 할인된다. 올해 대회는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국내외 4천여 명의 기업인의 참가가 예상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기업 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한상 비전

콘서트, 세미나,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는 한상과 국내 기업인이 함께 하는 한민족 경제인의 네트워크 장으로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등록 문의는 세계한상대회 본부사무국(전화. 02-3415-0052)으로 하면 된다.




오래된 풍경

심갑섭(미국)

긴 그림자 들판에 누워있고
시골길이 소 걸음보다 느리게 어슬렁 거린다
새 한 마리 없는 눈에
버나락은 하릴없이 고개 숙이는데
텅 빈 마을 어귀를 바라보는 낡은 집이
귀를 쫓긋 세우고 수심에 잠긴다

뜨락에 쌓이는 고요
떠난 사람 바라보던 짜릿문은
달힌 적이 없다
아궁이 구들장은 허기가 지고
피어오를 연기도 없는 굴뚝엔
바람만 서성인다

어두운 셋길로 새벽이 스며들고
어찌다 문이 흔들리면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지피듯
다시 피어나는 그리움
밤새 뒤척이는 노인의 잔 기침에
봄이 머뭇거린다.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베트남 귀환 한-베 다문화가족



김용찬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회장

재외동포사회의 다양성 증가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베트남으로 귀환한 한-베 다문화가족의 인권과 복지 이슈이다. 한-베 다문화가족의 약 30% 정도가 이혼이나 별거 등을 통해 가족이 해체되고,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가 베트남으로 재이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으로 귀환한 한-베 다문화가족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베트남 정부의 교육과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또한, 아버지가 동의를 거부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귀환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생활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과 귀환 후 고향에서 직면한 비난 등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한 베트남 귀환 한-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한-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 자녀교육, 주거환경개선,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병행해야 한다. 공적개발원조와 한인사회, NGO 등의 활용도 필요하다.

둘째, 한-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한국어와 정체성 확립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가족해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결손가정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한 교육지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한-베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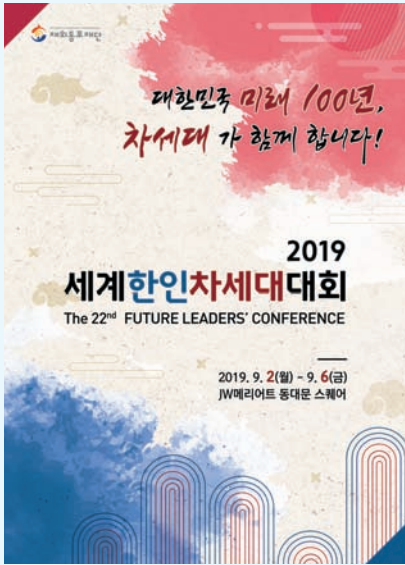
넷째, 아버지의 동의를 필요한 여권갱신 절차로 인해 한-베 다문화가족 자녀가 불법체류자 또는 무국적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베트남으로 재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수속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부처별 협력과 베트남 정부와의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재외동포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소외계층 재외동포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베트남 귀환 한-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는 유대인을 지원해온 것처럼, 거주국에서 소외되어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모국으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장**





2019 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22th Future Leaders' Conference)



재외동포재단은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를 발굴·초청하여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과 더불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 차세대가 함께합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18개국 114명의 참가자와 함께합니다.

1. 목적

- 차세대 동포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구축
 - 해외 각국의 한인 차세대의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활동 지원
 -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핵심 차세대 인재 발굴·초청
- 차세대 동포들과 모국 차세대간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의 장 마련
 - 지역별·분야별 차세대간 교류를 통한 국내외 차세대 리더간 상호 이해·공감대 확산 및 실질적 유대감 형성 지원

2. 행사 개요

- 행사명: 2019 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22th Future Leaders' Conference)
- 슬로건: '대한민국 미래 100년, 차세대가 함께합니다!'
- 기간: 2019.9.2(월)~9.6(금), 4박 5일
- 장소: 서울(JW메리어트동대문서울스퀘어), 인천(송도라마다)
- 참가자 현황: 18개국, 총 114명(예정)
 - 해외: 100명(차세대리더 82명, 차세대단체대표 18명)
 - 국내: 14명(차세대 리더, 전문가 등)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뉴욕좀비 순하오 리우(서울셀렉션)

뉴욕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난민의 삶을 배경으로 인간의 감정과 정체성의 혼란을 그린 소설이다. 작가는 재중동포였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문학 활동 금지를 당하면서 미국으로 망명했다. 여러 국가를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의 사회적 상상력과 개성적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내편, 돼줄래요? 이수정(슬로래빗)

메마른 인간관계로 진실한 관계 쌓기가 어려운 요즘, 재미동포 작가의 에세이로 관계의 숨을 틔워보자. 뜻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살이를 건디다 보면 가까운 이들을 잊고 지내게 된다. 작가는 재미동포 작가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관계들을 쉬운 문장으로 풀어냈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의 모습을 각자 삶에 적용해볼 수 있길 바란다.



크리스타와 김밥 앤절라 인(생각의집)

이민자의 나라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소녀의 이야기로 문화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진 동화이다. 캐나다 CBC 선정 '2018년 상반기 8개 중학교 권장 도서'로 뽑힌 이 동화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살아나야 하는 이민자 아동들에게 친근한 방법으로 정체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소재로 음식을 선택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김밥을 소개하고 전 세계 국가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며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가 몰랐던 까칠한 다문화 이야기 손소연(즐거운학교)

10여 년간 다문화 현장에서 교사로 있는 저자가 아이들과 겪었던 일들을 책으로 펴냈다.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는 다문화의 민낯이 아이들의 말과 글을 통해 전해진다. 이 책은 다양한 모습의 아이들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함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우리가 여태 생각하지 못했던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해 주는 책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재외동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3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2019. 10. 2 (수) - 5 (토) |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

주최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후원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ew 100 years with Hansang!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

제18차
세계한상대회

THE 18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9.10.22(화) _ 24(목) 여수세계박람회장